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과 혁명 기억의 재건*

박구병**

단독/아주대학교

Park, Koo-Byoung (2016), “Reconstructing Public Memory of the Mexican Revolution: The Monument to the Revolution in Mexico City”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why the post-revolutionary state built public commemorative memorials such as the Monument to the Revolution in Mexico City to glorify the Mexican Revolution and perpetuate its official memory. The significance of the Monument to the Revolution in reinforcing national integration and unification as well as in prolonging its commemoration has been only marginally discussed. Post-revolutionary leaders regarded the cityscape as an artifact of the Revolution, and therefore a way of demonstrating the direc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following the prolonged revolutionary upheaval.

The historian Patrice Elizabeth Olsen properly points out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Monument to the Revolution was intended to reconstruct public memory of the Revolution as well as contemporary history, and to reconcile rival forces by removing Europhilic symbols of the Porfirio Díaz regime, such as the Palace of the Federal Legislature. The Monument adopted Prehispanic architectural forms to extol indigenous cultures and *mexicanidad*. Also inherent in the monument were the legitimation of post-revolutionary state and a symbolic reclamation of public space.

The Monument to the Revolution in the capital city was paradigmatic, not only of revolutionary change, but also of a grand transition from the nationalist struggle for Independence to the liberal Reform of the mid-19th century, culminating in the Revolution of the 20th century. However, the enduring, evocative power of the Monument has had more to do with a subsequent modification that was carried out in the early 1940s, rather than with its original design and concepts in the previous decade. Its architect then designed a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NRF-2008-362-B00015).

** Koo-Byoung Park is an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t Ajou University (Email: kbpark@ajou.ac.kr).

honored cemetery for five revolutionary leaders, and thereafter the meaning of the Monument and its linkage with the Revolution were definitively enhanced.

Key Words: monument to the revolution, post-revolutionary state, la ciudad de México (Mexico City), Carlos Obregón Santacilia, realms of memory

멕시코 혁명과 혁명 후 체제의 교육·문화 정책

1910년 11월 20일에 개시된 멕시코 혁명은 1898년부터 1920년 무렵까지 20세기 라틴아메리카 역사의 첫 국면을 대표하는 대격변으로서 흔히 러시아 혁명에 앞선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으로 거론된다. 이 사건은 시기적으로 러시아 혁명을 앞설 뿐 아니라 기존 사회경제적 체제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에 비견할 만했다. 장기 독재 체제와의 단절을 시도한 이 혁명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분쟁과 충돌로 점철된 19세기에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일성이자 멕시코에 근대 국가로서의 새로운 지속성을 부여한 사건이었다(Lomnitz 2006, 335). 공식 해석에 따르면, 20세기 멕시코의 탄생을 알린 혁명은 국민 생활의 모범이자 길잡이였다(Torres Parés and Villegas Moreno 2010, 9). 하지만 혁명에 직접 가담한 언론인 마르틴 루이스 구스만이나 시인 옥타비오 파스가 요약하듯이, 멕시코 혁명은 극단으로 치달은 대중 봉기의 환희와 ‘총탄 축제’(Guzmán 1965, 163) 속에 사상적 교의나 사회 변화에 대한 보편적 전망이 부재한 현실의 폭발처럼 보였다(Paz 1990, 162-163). 투쟁 과정에서 이질적이고 때로는 대립적인 사회 운동과 이해관계자 집단 사이에 동맹을 형성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에 걸맞은 정치적 실용주의가 촉진되었기 때문에 이념적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거나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혁명의 성격과 시기 구분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지만 대다수 연구자들은 혁명이 멕시코를 통합적 성격의 국민국가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는 데 동의한다. 프란시스코 마테로의 ‘공정선거, 재선반대’ 투쟁으로 촉발된 멕시코 혁명은 향후 10년 간 전국으로 확대되어 35년 간 지속된 포르피리오 디아스의 과두지배 체제(Porfiriato)를 무너뜨리고 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혁명 후 체제를 출범시켰다. 서유럽을 본보기로 삼아 근대화를 지향하려던 디아스 체제와 달리 혁명 후 체제는 원주민의 전통을 복원하고 메스티사해

(mestizaje)를 새로운 집단적 정체성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국가 발전 방향의 대전환을 모색했다.¹ 10년 동안 인구 1,500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이 넘게 희생된 혁명기의 폭력이 가라앉은 뒤에야 멕시코는 유럽계 후손뿐 아니라 원주민, 메스티소를 아우를 수 있는 좀 더 통합적인 국가로 변모할 단계를 맞이한 것이었다.

1920-1930년대 혁명 후 체제에 관한 기존의 연구 동향 가운데 두 가지 주요한 주제를 꼽는다면, 우선 1920년대 국민정체성의 구축과 관련된 교육·문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1930년대 중반 일련의 개혁 정책을 주도하면서 혁명의 불씨를 되살려낸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의 집권기(1934-1940)라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범주의 여러 연구들이 1920년대 초 멕시코국립대학교 총장과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호세 바스콘셀로스(José Vasconcelos)의 활동²,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벽화 운동의 역할과 의미 등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이 글에서는 그동안 덜 주목받아온 혁명 후 체제의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이 지니는 역사적 중요성을 검토하는 데 치중하고자 한다.

지역별로 다양한 혁명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멕시코’(muchos Méxicos)의 면모가 드러났지만, 1920년 이래 재건 국면에는 그것을 전유(專有)하고 전용(轉用)한 혁명 권력의 중심지로서 멕시코시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 멕시코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모더니스트 건축의 확산 경향, 혁명 관련 기념물 조성의 취지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디아스 시대가 도시 경관에 남겨 놓은 유산을 대체하고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혁명 후 체제 재건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혁명에 대한 기억을 구축하

1 이런 일반적인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도 있다. 마우리시오 테노리오 트리요에 따르면, 교육을 통한 원주민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합의, 메스티사헤에 대한 찬사와 미화는 이미 디아스 시대 말년에도 감지되었다. 테노리오 트리요는 흔히 혁명 후 체제의 업적으로 간주되는 메스티소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찬사의 분위기가 혁명 전에 포착되었다고 주장한다(Tenorio Trillo 1996, 100).

2 1914년 11월부터 1915년 1월까지 아구아스칼리엔테스 협의회회의 교육 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는 바스콘셀로스는 교육을 혁명 완수를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1921-1924년 혁명 후 체제의 교육부장관으로서 학교 설립과 교과서 간행, 원주민 예술의 발굴과 축제 개최, 문화사절단의 전국 순회와 험지(險地) 파견, 문맹퇴치 운동 등을 이끌었다. 바스콘셀로스의 교육부는 교육을 각 분야의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의 공동 작업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건축과 예술 교육을 총괄하는 역할도 맡았다.

고자 했는지, 그런 시도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향후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문화를 정치, 경제, 사회의 영역과 관련 없이 고립적이거나 주변적인 개념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적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반영하며 사회적 변동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시에 그것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멕시코의 혁명 후 체제의 문화 정책을 검토하면서 기념과 기억 문화의 정치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멕시코시: 디아스의 근대화 실험장에서 혁명 후 체제의 재건으로

포르피리오 디아스가 1876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좌에 올랐을 때, 멕시코 시에는 두드러진 공공 건축물이 거의 없었다(Oles 2013, 199). 19세기 초 정치적 독립 이후 멕시코는 끊임없는 지역적 분열, 외세의 개입, 자유주의자와 보수파 간의 내전 탓에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뚜렷한 정체를 구성하지 못했다. 디아스는 강압적 통치를 통해 반란과 지역 간 갈등으로 점철된 혼란기를 마감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면서 경제적 자유주의와 대외개방에 바탕을 둔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 디아스의 목표 가운데 하나는 유럽의 여러 주요 도시들에 필적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다. 디아스 정부는 원주민과 에스파냐적 요소를 간직하는 동시에 파리를 본보기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선을 빚었고 ‘과학파’(los científicos)로 알려진 디아스의 측근들은 여전히 원주민을 열등하고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인종 집단으로 인식했다.

유럽적, 특히 프랑스적 요소로 멕시코적 요소를 덮으려는 시도는 ‘포르피리오 디아스 시대의 건축 양식’을 낳았다. 이는 1860년대 파리의 도시 계획을 주도한 조르주-외젠 오스망의 영향을 깊이 받아 이상적인 도시를 구상하는 기획으로, 말하자면 멕시코시의 오스망화(Haussmannización)였다(Tenorio Trillo 1996, 86). 그리하여 디아스의 시대에 멕시코시는 대대적인 근대화의 실험장이 되었다. 일종의 근대적 표지(標識)로서 멕시코시의 주요 명소와 특색 있는 건물은 대부분 이런 양식에 따라 건설되었다. 1900년 무렵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멕시코시의 근대화 기획은 주로 병원, 학교, 공장 등의 건설과 대규모 공공사업의 추진에 초점을 맞췄지만(LaRosa 2005, 118), 디아스 시대가 선호하는 양식에 의거해 이룩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로마 지구(Colonia Roma)의 재건과 레포르마 거리(Paseo de la Reforma)의 정비였다.

디아스는 1860년대 중반 프랑스의 개입 시기에 막시밀리아노 황제가 주거지인 차폴테펙 성과 소칼로(Zócalo) 광장에 인접한 집무 공간 사이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고자 닦아놓은 레포르마 거리를 지속적으로 정비했다. 그 과정에서 에스파냐 식민시대 양식의 건물들이 디아스 시대의 더 큰 건물들로 대체되었다. 또 1880년대 초부터 ‘동상(銅像)의 침압’이라 불릴 정도로 이목을 끄는 조각상과 기념비, 건축물의 건립이 이루어졌다. 1889년부터 1900년까지 레포르마 거리에는 멕시코 자유주의 전통을 강조하는 동상 36개가 세워졌다(Benjamin 2000, 120). 이는 20세기 초부터 서쪽으로 확대된 멕시코시를 예증하는 프로젝트였다. 게다가 디아스는 다양한 독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이탈리아 예술가에게 의뢰해 향후 ‘천사상’(angel)으로 부르게 될 독립 기념 조각상을 제작했다. 파리 방돔 광장의 청동 기념탑을 본떠 만든 천사상은 독립 100주년 기념일인 1910년 9월 16일에 제막되었다. 디아스로서는 자신의 80세 생일이 역사적인 기념일 전야(9월 15일)의 ‘멕시코 만세’ 합성 의례와 겹치는 부가적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로 여겼을지 모른다(González 2007, 503).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 1910) 역시 “멕시코의 독립 100주년 기념은 의심할 바 없이 대통령이 누리고 있는 권력의 현시(顯示)”였다고 보도했다.

또 디아스는 멕시코시의 허파라 할 수 있는 알라메다 공원을 정비하고 그 옆에 국립 극장을 건설함으로써 멕시코시에 근대 도시의 면모를 부여하려 했다. 디아스 시대의 영광을 상징하는 또 다른 기념 건축물은 1897년에 착공되었으나 완성되지 못하고 1930년대에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로 대체된 연방 입법부 건물(Palacio Legislativo Federal)이었다.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서 선발된 이탈리아 건축가 피에트로 파올로 칼리아(Pietro Paolo Quaglia)가 착공 전에 사망하는 예기치 않은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새로이 선정된 프랑스 건축가 에밀 베르나르(Émile Bernard)는 미국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과 같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축물을 구상했다. 그러나 혁명이 발발했고 이 건축물은 디아스 체제의 미완성 은퇴작이 되었다.

다른 한편에서 디아스 정부의 도시화 프로젝트, 정치 부패와 독재에 환멸을 느낀 젊은 세대의 예술가들은 상징주의와 아르누보 등 전위 예술적 실천을 통해 디아스 시대의 실증주의적 분위기에 문제를 제기하고 원주민의 유산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면서 독특한 미학적 관심사를 추구하고자 했다(Oles 2013, 198, 213). 이보다 더 강력한 저항은 1910년 11월 혁명의 물결로 표출되었다. 독립투쟁 개시 100주년 기념의 해에 발발한 혁명은 초기에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가 주도한 정치적 도전의 성격이 강했지만 에밀리아노 사파타와 판초 비야의 운동 같은 일부 지역의 대중 봉기를 통해 확대되면서 결국 디아스 체제를 무너뜨렸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각 지역의 실력자들이 대중 동원과 무장 투쟁을 통해 세력을 확대하려고 경쟁하는 국면이 전개되었다면, 1920년 이후에는 권좌에 오른 북부 출신 혁명파가 그동안 아래로부터 터져 나온 개혁의 열망을 선별적으로 포섭하고 실행하는 동시에 중앙집권화를 지향한 재건, 달리 말해 혁명의 제도화 국면이 이어졌다. 알바로 오브레곤(Álvaro Obregón)에 이어 1924년 집권한 플루타르코 엘리아스 카예스(Plutarco Elías Calles)의 강력한 반(反)교권주의와 세속화 정책은 혁명 후 체제의 변화와 특성을 대변했다.

어떻게 응집력 있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라는 벽찬 과제에 직면한 집권 세력은 이질적이고 궁핍한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길 원했다. 이를 위해 혁명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영역은 각종 개혁의 실행 외에 예술가와 지식인들의 뜻을 모아 멕시코의 새로운 정체성을 부각시키는 일이었다. 이는 예컨대 교회 건물의 공적 활용이나 옛 정부 관련 시설물들을 ‘혁명 벽화’로 다시 장식하는 작업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벽화는 대중에게 혁명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의 정치적 의식을 주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였다. 또 벽화에 나타난 멕시코의 과거, 현재, 미래는 사실상 역사 교과서의 대용품이 되었다. 디아스도 19세기 자유주의 전통의 후예로서 공교육의 확대와 시민 문화의 형성이 원주민을 비롯한 국민을 통합하는 데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 기대한 바 있었지만 (Creelman 2002, 290), 혁명 후 체제는 디아스 시대의 유럽 지향적 분위기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원주민 문명을 멕시코인의 영광스런 과거이자 국민문화의 원천으로 강조했다. 더욱이 호세 바스콘셀로스가 1925년에 발간한 대표작 『융합적 인종』(*La raza cósmica*)에서 역설한 것처럼 혁명 후 체제는 인종·언어

· 지역 · 문화적 다양성이 융합된 메스티사헤를 멕시코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표방하면서 새로운 통합의 방향을 제시했다.³

게다가 혁명 세력의 지도자들은 후속 세대를 대상으로 ‘뿌리로부터의 개혁’을 펼치기 위한 구상을 다듬었다. ‘혁명의 최고 지도자’ 카에스가 1934년 7월에 발표한 ‘과달라하라의 외침’은 그런 의도를 잘 담고 있었다(Krauze 1997, 433 재인용). “혁명은 끝나지 않는다. [...] 우리는 내가 심리적 혁명이라고 부르려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것을 사로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혁명이고 혁명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혁명은 편견을 뿌리 뽑아야 하고 새로운 국가적 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통치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공식적 기억을 전달하고자 교육과 예술 활동이 활용되었다면,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혁명 정당’이 등장했다. 권력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세력의 반발을 차단하고 정권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필수적이었는데, 1928년 선거를 통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오브레곤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암살당한 뒤 이임을 앞둔 대통령 카에스가 ‘혁명의 최고 지도자’(el Jefe Máximo de la Revolución)로서 정치적 공백을 메우고 혼란의 수습을 주도했다. 특히 카에스가 전임 대통령이자 막후 실세로서 지휘한 1929년 3월 국민혁명당(PNR)의 창설은 혁명 세력 내의 동요와 내분을 막고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한 정치를 조직에 근거한 정치로 바꿔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혁명의 제도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로 떠올랐다.

국민혁명당이 창설될 무렵 디에고 리베라가 국립궁전에 그리기 시작한 대작 <멕시코의 역사>는 멕시코 혁명 권력 승계의 제도화를 모색하려는 권력 엘리트층의 염원을 충실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당시 유행한 ‘혁명적

3 바스콘셀로스에 따르면, 기존의 네 인종(백, 흑, 황, 홍)을 대체하는 동시에 모두를 아우르는 아메리카의 메스티소 같은 ‘제5의 인종’이 정신적 가치가 존중받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 것이었다. 바스콘셀로스는 멕시코시의 신축 교육부 건물에 라틴아메리카의 형성에 공헌한 네 문명, 즉 에스파냐와 멕시코의 전통, 그리스와 인디아의 문명을 상징하는 네 기둥과 기존의 네 인종을 표상하는 석상을 세웠다. 그리스는 유럽 문명의 모체로서 플라톤의 이름이 새겨졌고, 에스파냐는 라틴아메리카를 나머지 세계와 연결시킨 머릿돌로서 바르톨로메 데 라스카사스 신부의 이름과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가 각인되었다. 아스테카의 유산으로는 ‘최초의 교육자’ 콧살코아틀(Quetzalcóatl)의 신화를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연꽃 속에 싸인 붓다(Buddha)의 모습을 그려냄으로써 통합적인 문화를 상징하고자 했다(Noriega 1982, 118).

인디헤니즘(indigenismo)와 진보사관을 재현하려 했다(Rhee 2002, 111). 리베라는 산업화와 기계화 시대의 대세를 이룬 모더니스트 건축의 기능적 측면에 관심을 보이는 한편, 나아가 예술을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사업이나 기획으로 이해하고 건축 역시 빈민의 대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Guillén 2004, 10). 1930년대 중반 이후 벽화 운동은 영화와 라디오를 통한 정치적 선전 활동에 비해 정부의 공식 전략으로서 중요성이 감소했지만, 국제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던 모더니즘과 더불어 에스파냐 정복 이전의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멕시코 고유의 특성(mexicanidad)을 표현하려는 열망을 담아내는 데 여전히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다(Burian 1997, 83).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 모더니즘과 멕시코성의 결합

혁명의 무장투쟁 국면과 1920년대의 재건기를 거치는 동안 멕시코시에서 ‘동상의 침입’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다. 대신 혁명 정부는 학교, 체육공원, 집단농장(ejido), 관개수로 등 각종 공공시설의 건설 사업과 사회적 향상 자체야말로 진정한 혁명의 기념비라고 주장했다(Benjamin 2000, 123). 혁명 지도자들이 모더니즘과 멕시코 고유의 특성 간의 조화를 이루고자 주목한 또 다른 영역은 도시 계획과 경관의 디자인이었다. 멕시코시는 디아스가 남겨놓은 흔적 위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양식의 도시 외관을 구축해야 했다(Tenorio Trillo 1996, 103). 도시 경관은 혁명 유산의 하나로서 혁명 후 체제의 진로와 방향을 예증했다. 그리하여 1928-1940년에 혁명은 거리에 도반영되었다.

오래 지속된 격전을 끝내고 어떤 면모를 지닌 국가를 재건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분명하지 않았지만, 혁명의 승리자들은 혁명기의 허약한 국가를 대체하는 연방 정부의 재정비와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혁명 후 체제는 디아스 시대의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수정하면서 우선 혁명에 기여한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기존의 거리들을 새로이 명명하고 일부 지역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했다. 이를 통해 혁명 자체를 비롯해 멕시코의 역사 전반을 재해석하고 도시 경관을 기념의 공간으로 전유하려는 혁명 후 체제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 이로써 1913년 2월 마데로가 암살당한 ‘비극의 10일’ 이후

혁명기 폭력에서 벗어나 파괴를 면한 멕시코시는 혁명의 수도(首都)로 재확인되었고 혁명 전후에 근거한 새로운 집단 정체의 중심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Olsen 2006, 124-125; Joseph and Buchenau 2013, 75).

거리와 건물에 대한 새로운 명명(命名)과 함께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monumento a la Revolución)은 혁명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표지로서 멕시코시의 구성 요소를 조정하고 통제하며 혁명에 대한 공적 기억을 연출하려는 혁명 후 체제의 노력을 집약했다. 아벨라르도 로드리게스(Abelardo Rodríguez) 대통령의 임기(1932-1934) 중에 각종 건물과 기념비의 건축과 보존 업무를 담당한 건축가 안토니오 무뇨스 가르시아에 따르면, 그 시기에 이루어진 몇 가지 기획 사업은 연방구역(Distrito Federal) 역사상 비길 데 없는 독보적인 업적이라 할 만 했다(Olsen 2008, 75 재인용). 로드리게스의 임기는 막시마토(Maximato), 즉 실권자 카에스가 주도하는 막후 정치의 전성기와 일치했다.

1933년에 착공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무엇보다 디아스 체제의 근대화 기획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디아스가 건립하고자 계획한 연방 입법부 건물은 혁명이 발발했을 무렵 이탈리아제 대리석과 노르웨이제 외장재가 이미 반입되고 중앙의 반구형 지붕(cúpula)과 그것을 떠받치는 철골 기둥 구조물 부분만 공사가 끝난 상태였다. 혁명기에 공사가 중단된 뒤 1930년대 초 구리로 만든 반구형 지붕 가운데 일부가 산화되어 고철로 팔려나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미완성 건축물은 결국 디아스 체제에 대해 혁명 세력이 거둔 승리의 기념물로 재활용되었다. 프랑스 예술풍(Beaux-Arts) 건축물의 재생과 변신 작업을 지휘한 건축가 카를로스 오브레곤 산타실리아(Carlos Obregón Santacilia)는 멕시코시의 인상과 윤곽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건축물의 반구형 지붕과 천장을 남겨둔 채 다른 부분의 설계를 완전히 바꿨다(Obregón Santacilia 1960, 36).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독자적인 역사적 기억의 상징물일 뿐 아니라 20세기 초 모더니스트의 영향을 반영하는 문화적 표지이기도 했다. 20세기 초 라틴아메리카의 예술과 건축 분야에서 모더니즘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났는데 1920년대와 1930년대에 멕시코와 외국 출신의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혁명기에 분출된 폭력성을 멕시코의 구원과 변화를 위한 웅장한 서사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나름의 모더니즘이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⁴ 혁명 후 체제의 지도자들은 원주민적 감수성을 담은 모더니스트 양식을 후원하고 확산시켰다 (Guillén 2004, 8).⁵

단단한 구조를 지닌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에는 재료의 혼합만이 아니라 멕시코 여러 지역의 특징적 주제와 에스파냐 정복 이전의 건축 양식, 그리고 아르데코(Art Deco) 양식의 혼합이 반영되었다. 오브레곤 산타실리아는 국민적 기원에 대한 탐색과 엄격한 구성 원칙 간의 쉽지 않은 결합을 시도했다 (Burian 1997, 159). 대체로 수수하고 어두컴컴한 외관을 지니게 되었지만, 1936년 9월 28일 <엑셀시오르>(Excelsior 1936)가 공개한 기념 건축물 조성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곧 완공될 혁명기념 건축물과 혁명 광장은 전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곳 가운데 하나”로서 바로 옆에는 국민혁명당의 새로운 당사와 임·수산업부 청사, 에히도 은행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었다.



그림 1.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

-
- 4 칠레 출신의 인류학자 클라우디오 롬니츠에 따르면, 멕시코의 독특한 모더니즘은 유럽인의 정복 이전의 예술, 멕시코의 혁명 정신을 대변한 대중 예술, 그리고 근대적 재질, 기능적 디자인, 전통적인 부르주아적 합리성과 취향에 대해 비판적인 국제적 모더니즘 등 세 가지 원천으로부터 활력을 끌어냈다(Lomnitz 2006, 347).
- 5 1929년 르 코르뷔제(Le Corbusier)가 라틴아메리카를 처음 방문한 뒤 브라질리아가 조성된 1960년까지 라틴아메리카의 모더니스트 건축은 기능성, 효율성, 정확성, 단순성, 규칙성 등의 강점에 매혹된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영향력을 확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기업과 정부의 후원이 줄어들면서 모더니스트 기획의 영향력도 점차 약화되었다(Guillén 2004, 6-7, 21, 24).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과 멕시코시의 과거와 현재 사이의 관계는 멕시코 건축계에서 혁신의 주역으로 인정받은 젊은 건축가 후안 오고르만(Juan O’Gorman)의 템페라(tempera)화에 잘 나타나 있다(Guillén 2004, 11). 르 코르뷔제의 기능주의에 동감을 표한 오고르만은 1940년대 말 <멕시코시>(La Ciudad de México)라는 제목의 그림 속에 약 65m에 이르는 혁명기념 건축물의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멕시코시 심장부(centro histórico)의 모습을 담았다. 부리안과 카란사의 해석에 따르면, 이 작품은 과거의 건축과 그것이 지니는 미학적 함의와 단절하려는 오고르만의 의도를 보여준다. 나아가 원주민 또는 메스티소 건설 노동자를 건축 기술의 주요 구성 요소로 묘사하면서 대중 미학적 관행과 국제주의적인 미학적 관행의 대립을 시사한다(Burian 1997, 140; Carranza 2010, 169). 또 화폭에서 옛 테노치티틀란의 모습을 담은 1524년의 지도를 들고 멕시코시의 변화된 모습을 동시에 바라보는 화가 또는 건축가는 멕시코의 수도가 겪어온 역사의 의미에 대해 되돌아볼 것을 권고하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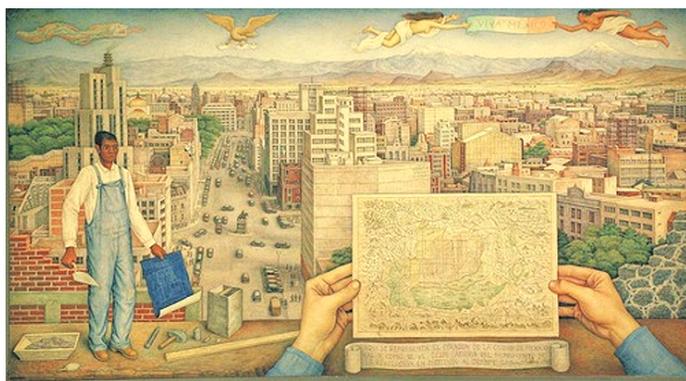


그림 2. 후안 오고르만의 <멕시코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과 ‘기억의 터전’⁶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건립은 공공영역의 환수(還收)를 명시하는 대표적

6 프랑스의 역사가 피에르 노라(Nora et al. 2010)에 따르면, ‘기억의 터전’(les lieux de memoire)은 어떤 국민(또는 민족) 공동체의 집단적 인상(印象)과 경험에 대한 의식이 스며들고 구현되어 있는 장소나 상징적 요소를 의미한다.

인 사례였다(Olsen 2008, 77). 그것은 메스티소와 원주민의 전통에 혁명의 성과를 가미한 새로운 집단 정체의 상징으로 부각되면서 디아스와 지배 엘리트 층이 적극 수용한 유럽 취향의 독립 기념 조각상이 지닌 위세에 맞설 예정이었다. 1933년 10월 카예스는 “혁명의 기억을 영속시킬 진보적이고 애국적인 기획”이라는 실무 담당자 후안 바르가스 장군의 서한을 접수했다(Olsen 2008, 79 재인용). 이런 개조 계획은 대다수 멕시코인들에게 디아스의 시대가 최종적으로 끝났다는 선언으로 비쳤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공개 모금과 기부로 이루어질 계획이었고 재무장관 알베르토 파니는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이 “모두를 위한 모두의 작업”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협조 서한을 여러 주의 지사들에게 발송했다.

원래 파니는 젊은 조각가 루이스 오르티스 모나스테리오가 구상한 대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을 프랑스의 팡테옹(panthéon)과 같은 시설, 즉 혁명 영웅들의 유해를 합사(合祀)하는 묘실로 만들 것을 제안했으나 곧 철회했다. 철회 이유에 대해 파니는 “멕시코를 통치한 인물들이 불행하게도 흔히 국가의 영속적인 이해관계보다 일시적이고 정치적인 편의나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기념물에 입회할 역사적이고 신성한 헌신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Olsen 2008, 78). 어쨌든 멕시코가 20세기 초에 유희이 낭자한 사회혁명을 겪은 유일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로서 팡테옹에 자리 잡을 후보자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지녔다는 점은 분명했다. 따라서 1923년 알바로 오브레곤 정부는 디아스식 건축물의 중앙 반구형 지붕을 영웅들의 팡테옹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그 건축물의 설계자인 에밀 베르나르를 다시 고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한 공회당(公會堂)으로 만들자는 또 다른 방안이 대두되어 경합하는 사이 미완성의 구조물은 점차 마모되었다(Carranza 2010, 175). 결국 오브레곤 산타실리아의 주도 아래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카예스와 파니의 구상을 반영해 디아스 체제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활 모양의 구조물로 확정되었다.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을 기념하는 이 건축물은 띠 모양의 화환 장식이나 혁명적 구호와 정부 정책의 기입 없이 추상적인 무형(無形)의 기념물로, 달리 말해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肖像)을 내세우지 않으며 얼마간의 종교성도 배제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다. 대중의 저항에 영예를 부여할 뿐 특정 영웅과 순교자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기념 건축물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카예스의

구상이 반영된 까닭이었다(Olsen 2008, 78, 245). 카예스에게 혁명은 카우디오(caudillo) 중심의 통치나 분파주의에 맞선 기획이었고 정부는 영속적인 혁명이 전환된 결과로서 개혁을 주도하며 그것에 의해 유지될 터였다. ‘혁명의 최고 지도자’ 카예스는 혁명을 대중의 집단적 성취로 해석하면서 특정인이 혁명의 핵심적 상징으로 돋보이고 승배의 대상이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것이었다.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혁명을 새로운 국민 정체성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정부의 의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카예스와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혁명적 연대를 훼손할 수 있는 분파주의와 당파적인 순교자 승배의 관행을 지양할 뿐 아니라 그것을 공식적이고 단일한 혁명 전통과 해석에 포섭하려 했다(Joseph and Buchenau 2013, 111). 혁명과 동일시하거나 동질감을 갖는 모든 계층과 집단에게 열려있는 정당임을 선언한 국민혁명당과 카예스의 주요 관심사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들의 모순적이기까지 한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화해시키는지에 관한 것이었다(Camín and Meyer 1993, 110). 달리 말해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혁명의 기념과 더불어 혁명기에 격돌한 뒤 상이한 기억과 기념의 요소를 쌓아가고 있던 분파와 지역을 묶어내는 화해와 통합의 구심점으로 기능해야 했다(Benjamin 2000, 118, 125; Olsen 2008, 80). 혁명기의 분열이라는 큰 부담과 고민을 안고 있는 혁명 후 체제의 지도자들은 이 기념 건축물이 다양한 혁명의 기억을 얼마간 희석시키면서 합의의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는 애국적 서사로 받아들여지길 원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혁명의 역사가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집단적 ‘기억의 터전’ 위에 구축된다는 것과 기념물이 역사를 만들고 후속 세대의 의식을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을 일찌감치 감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 혁명이라는 대사건을 기억하는 방식과 더불어 당파적 역사 해석을 어떻게 통합 지향적인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특정 사건과 인물에 대한 기념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이들과 그에 반대해 공동체의 균질적 의식을 강화하려는 정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과거사를 둘러싼 논쟁은 기억과 기념의 정치학으로 확대되었다. 권력의 주체가 환기시키고 주도하려는 공식적인 혁명 기념 방식에 대해 일부 세력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기념 유산의 제안, 설계, 건축 추진 과정에서 활약한 주역들은 혁명기념 건축물을 통해 디아스 체제의 극복을 넘어 어떻게 19세기 초 독립과 19세기 중엽 자유주의 개혁 투쟁(la Reforma)이

1910년 멕시코 혁명과 연결되고 지속되었는지 각인하고자 했다. 말하자면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독립과 개혁의 시대에서 혁명으로의 전환을 은유하고 있었다(Olsen 2006, 127).

더욱이 1933년 9월 공개경연 대회를 거쳐 선정된 조각가 올리베리오 마르티네스는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네 모퉁이 기반 부분에 이런 연계를 상징하는 육중한 조각상들을 설치했다. 오브레곤 산타실리아의 구상 속에서 조각상 자체는 부차적이고 보충적인 의미를 지닐 뿐이었지만, 이 조각상들은 19세기 중엽의 자유주의 정치 전통과 개혁 시대의 정신을 혁명과 연결시키려는 혁명기념 건축물의 의도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이는 독립 이래 멕시코의 변화, 즉 근대 국가 발전의 세 단계를 기념 건축물에 기입하려는 카예스와 파니의 계획을 반영한 것이었다(Carranza 2010, 177). 조각상들은 각각 독립, 개혁 시대 입법, 농업(토지)개혁, 노동개혁을 대변하고 19세기 초 독립투쟁부터 1910년 혁명까지 민중의 기보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표현하고자 했다(Carranza 2010, 173 재인용). 또한 조각상들은 특정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추상적 형태의 의복을 착용한 농민, 노동자, 병사, 원주민과 메스티소 등 민중의 자부심 넘치고 꺾이지 않는 의지를 담았다.

동남쪽에 위치한 조각상은 멕시코의 독립을 상징하는데 멕시코를 대변하는 대형 여성상, 사슬을 손에 쥐고 식민지 굴레의 단절을 은유하는 남성상, 자녀를 무릎에 앉힌 강건한 여성상을 통해 국민의 유대를 표현한다. 개혁 시대를 대표하는 동북쪽의 세 조각상은 각각 칼과 두툼한 문서를 들고 있다. 칼을 쥔 대형 여성상은 보수파와 자유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격돌을 표현하는 한편, 두툼한 문서를 들고 있는 쌍둥이 조각상은 자유주의 세력의 승리로 탄생한 1856년 토지개혁법과 1857년 헌법, 그리고 시민의 평등을 상징했다. 토지 수여 증서를 쥐고 있는 서남쪽 모퉁이의 농민상, 기계 부품을 들고 있는 서북쪽의 남성 도시 노동자의 조각상은 혁명을 통한 회복과 권리의 획득, 즉 농업개혁법과 노동개혁법을 의미했다(Benjamin 2000, 131; Carranza 2010, 183 사진 참조). 1940년대 초 미국인 기자 베티 커크는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이 “독립, 개혁, 농업개혁과 노동개혁의 시대를 거치면서 궁핍함에 허덕이던 원주민들의 점진적 부활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른 위풍당당한 기둥에 활력, 소박함, 열망을 결합시켰다”고 기록했다(Kirk 1942, 13).

역사가 올센에 따르면, 수세기 동안 멕시코 역사에서 소칼로 광장이 차지해 온 중심적 역할과 위치를 감안할 때 그것은 멕시코시의 경관에서 논리적인

출발점으로 손색이 없다. 그와 대조적으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19세기 초 독립투쟁부터 면면히 이어온 변화의 귀결이자 제도화 국면에 이른 혁명의 상징이므로 멕시코시의 경관에서 종착점으로 손꼽힐 만하다(Olsen 2008, 238).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혁명 후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화적 표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랜 역사가 녹아 있는 멕시코시 심장부와 통하는 출입구로 간주되었고 점차 수도의 역사적 이행과 변화를 함축하는 공간이 되었다(Burian 1997, 157).



그림 3.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서남쪽 농민 조각상

1914년 입헌파(Constitucionalista) 병사들이 멕시코시에 진입해 승기를 잡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1933년 8월 14일에 착공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건립에는 석공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애당초 이듬해 혁명 기념일인 11월 20일에 완공하기로 목표를 세웠으나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각계의 기부금액은 전체 공사비 50-60만 페소의 10퍼센트에 지나지 않았다(Olsen 2008, 80-81). 게다가 1938년 11월 20일 혁명 기념일에 준공되었지만, 공식적인 제막식은 개최되지 않았다. 또한 카르테나스와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의 재임기(1940-1946) 내내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에서 혁명 기념식이 거행된 적은 없었

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을 건립의 제안자이지만 1935년 6월 카르테나스에게 축출 당한 ‘혁명의 최고 지도자’ 카예스와 매우 밀착된 기념물로 평가한 이들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Benjamin 2000, 132).⁷

요컨대 멕시코 혁명을 주기적으로 환기시키는 기념 건축물의 저력은 원래의 구상이나 상징적 의미보다 후속 보완 작업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처럼 보인다는 일부 멕시코시 주민들의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1940년대 초 의회의 제안에 따라 오브레곤 산타실리아는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네 기둥 내부에 혁명에 활약한 걸출한 인물들의 묘소를 마련했다(Benjamin 2000, 134). 그리하여 1942년 1월에 1917년 헌법의 제정 25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네 기둥 가운데 한 곳의 내부에 입헌파의 수장 베누스티아노 카란사의 유해를 담은 구리 단지가 안치되었다. 1960년에는 1913년에 암살당한 혁명의 선두주자 마테로의 유해가 이장되었다. 두 거물의 유해 안치를 통해 이 건축물과 혁명의 연관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어 1969년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의 또 다른 편 기둥 내부로 카예스의 유해가 옮겨졌고 1970년 카르테나스의 유해 안치, 1976년 ‘혁명의 풍운아’ 판초 비야의 유해 이장은 멕시코인들의 큰 관심과 찬사를 불러일으키면서 기념 건축물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⁸ 혁명 영웅들의 영묘(靈廟)라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함으로써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기억의 터전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추상적인 방식으로 사회혁명의 성취를 드높이고자 기획된 기념 건축물은 이렇게 혁명의 지도자들과 동일시되었고 혁명적 단합을 유도하는 신성한 순례지, 즉 멕시코의 팡테옹이 되었다. 이는 대중의 반응에 힘입은 타협과 수렴을 통해 주류 정치 세력의 혁명 해석과

7 이런 상황과 또 다른 기념 건축물의 활용 사례를 비교하면 흥미로운 차이점이 드러난다. 1934년 로드리게스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착공되어 1935년 7월 개관된 멕시코시 산 앙헬 지구의 알바로 오브레곤 기념건축물은 ‘혁명의 마지막 순교자’ 오브레곤을 혁명의 카우디요로 묘사했다. 두 기념 건축물은 모두 혁명에 대한 카예스의 신념을 구체화했다는 데 공통점이 있지만,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이 추상화와 제도화를 통해 혁명을 지속적으로 기념하려 한 반면, 오브레곤 기념 건축물은 혁명의 추상화와 카우디요 정치 사이의 어쩔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준다(Carranza 2010, 184). 또 1940년 12월에 취임한 마누엘 아빌라 카마초는 대해 7월 17일 오브레곤 기념 건축물을 방문해 추모식을 챙기면서 국민의 단합과 혁명의 의미를 역설하고자 했다(Joseph and Buchenau 2013, 146-147).

8 멕시코 혁명의 대표적인 농민 지도자 에밀리아노 사파타의 유해는 이장을 거부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해 혁명기념 건축물에 안치되지 않았다(O'Malley 1986, 69-70).

기억의 방식이 얼마간 수정된 결과였다.

아울러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과 같은 공공 기념물이 기본적으로 기념 대상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중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올센이 지적하듯이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혁명 후 체제의 여러 지도자들이 여전히 숙고해야 했던 고민과 난제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여러 지역과 정치 세력 간의 화해와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멕시코 역사의 결정적 국면과 핵심 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적절한 공적 의례의 특징은 무엇인가? 혁명이 특정 정부와 동일시되거나 통치 과정 자체로 고정되고 1946년에 새롭게 붙여진 ‘혁명 정당’의 이름처럼 제도로 자리 잡는다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Olsen 2006, 132). 혁명 후 체제의 기획에 의해 기념 건축물로 고정된 혁명의 역사는 혁명의 제도화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신화의 재생산에 기여하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타협과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맺음말: 기념의 방식을 둘러싼 타협과 수렴

디아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뒤 혁명 세력이 구성한 정부는 혁명의 강령과 이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립기념일 축하 행사를 활용했다. 특히 1921년에는 디아스 체제의 독립 100주년 기념식과 다른 100주년 행사, 즉 정확히 한 세기 전의 독립의 쟁취와 완수를 기념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를 통해 기념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기념행사가 서로 경쟁하는 정치적 공동체의 집단 기억, 담론과 문화를 주도하는 필수적인 문화적 상징물이며 집단적 정체성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억의 터전’이라는 점을 예증해주었다.

1920-1940년의 혁명의 제도화 국면에 멕시코의 연방 정부, 예술가, 기업가, 사회운동 단체들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얼마간의 모순과 충돌이 발생했지만 메리 케이 본에 따르면, 이 과정은 독수리와 과달루페 성모(聖母), 즉 근대화를 지향하는 세속 국가와 전통적인 가톨릭 신앙의 교묘한 결합이었다.⁹ 부리안과 올리스는 이 시기에 연방 정부의 지부(支部)로

9 다만 혁명 후 체제의 새로운 국민정체성 모색과 관련된 문화 정책에 주목하면서 이를 ‘멕시코의 문화적 혁명’으로 부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롬니츠가 주장하듯 멕시코에서 문화적 변혁은 혁명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Lomnitz 2006, 339).

간주되던 멕시코시 당국이 예술가들에게 혁명 후 체제를 칭송하고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도록 요구했으며 건축 또한 대체로 정부에 봉사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만일 이들의 반응이 획일적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예술가와 건축가가 자율적이거나 그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약했기 때문이라기보다 혁명이 다양한 이념적 지향과 정치적 관점을 통합하고 포괄하려 했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Burian 1997, 84; Oles 2013, 283). 어쨌든 위로부터의 추동력에 힘입어 멕시코시는 혁명의 제도화 국면에 정치경제적 중심지일 뿐 아니라 문화적 중심지로서 지위를 굳힐 수 있었다. 1940년대 중반 이래 멕시코시는 경제 성장 속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고 문화적 자극이 고조되면서 정치경제적 환경은 물론이고 도시 경관이 극적으로 변모했다. 20세기 초부터 서쪽으로 확대된 멕시코시는 1950년대 초 이래 고층건물의 건립을 통해 지상으로 뻗어나갔다.

이 글에서는 건축이라는 문화적 표현과 혁명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멕시코 혁명 후 체제의 지배자들이 도시 경관 자체를 일종의 혁명 유산으로 만들고 중앙권력의 강화, 경제 발전, 사회 정의 등을 나름의 방식으로 구현하려 시도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 혁명 후 체제의 문화 정책과 혁명 기념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정치사적 접근에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을지 짚어보려 했다.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혁명에 대한 공식적 기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적 산물이었다. 오브레곤 산타실리아를 비롯한 건축 관계자들이 금속과 석재로 표현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구체제의 폐허 위에 재건된 독특한 기념물이었다. 디아스 시대가 남긴 파멸의 유적은 웅장하지만 수수한 혁명기념 건축물로 재생되었다.

혁명 후 체제가 건립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19세기 초 이래 전개된 민족주의적 투쟁과 자유주의적 개혁이 1910년의 혁명으로 귀결되었다는 공식적 해석을 담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다양하고 때로는 상이한 혁명의 흐름을 나눌 수 없는 단일한 전통과 기억의 틀로 포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새로운 성격의 국가 체제와 집단적 정체를 정비하려는 ‘혁명의 최고 지도자’ 카예스의 신념이 충실히 반영된 기억의 공식화와 정형화 과정에서 특정 카우디요 중심의 혁명 기억 방식은 의도적으로 약화되었다. 하지만 특정인의 이름과 초상 없이 추상적인 형태로 대중의 세속적 과업을 기리고자 한 멕시코혁명기념건축물은 1940년대 초에 그 성격을 달리하게

되었다. 카예스의 의도와 달리 그것은 멕시코의 팽테옹으로 변모했다. 그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균질적인 집단 기억을 강화하려는 권력자들의 목표가 대중의 반응에 의해 다소간 억제되었다는 점이다. 기념의 방식을 둘러싸고 타협이 이루어진 과정은 통합이라기보다 수렴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멕시코 혁명의 절정과 동일시되는 인물로 칭송 받아온 카르테나스가 1970년 10월에 사망하고 곧 한쪽 기둥 내부에 안치된 뒤부터 2010년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공교롭게도 혁명기념 건축물은 거의 방치되었다. 위대한 혁명의 기념 건축물이 실제 광고 안내판으로 활용될 정도였다(Obregón Santacilia 1960, 69 재인용). 오브레곤 산타실리아가 1936년에 제안한 국립혁명박물관은 1986년 혁명 기념일에야 혁명기념 건축물의 지하에 개장되었다. 이런 방치와 더불어 기억을 보존하려는 때늦은 움직임은 그 시기 동안 혁명의 사망을 은유하는 것이었을지 모른다. 멕시코시 정부는 2010년 독립선언 200주년과 혁명 발발 100주년에 맞춰 혁명기념 건축물에 대한 재개장 수준의 보수 공사를 마쳤다. 그리하여 혁명에 대한 공식적 기억을 응축하고 있는 이 기념 건축물의 전망대는 드넓고 다양한 멕시코시의 장관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확장되었다.

하지만 2000년 집권에 성공한 국민행동당(PAN) 정부 아래 1910년 멕시코 혁명의 토대는 약화되었다. 2010년 독립 200주년과 혁명 100주년 기념행사는 공적 담론에서 혁명의 중요성이 축소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펠리페 칼데론(Felipe Calderón Hinojosa) 대통령은 혁명 100주년보다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데 더 주력했다. 특히 2010년 신년사에서 칼데론은 독립투사들의 이름만을 거론하고 혁명 지도자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심지어 혁명의 첫 번째 주자이자 그리 과격하지 않은 정치 혁명의 기수인 마테로의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았다(Joseph and Buchenau 2013, 212-213).

참고문헌

- Benjamin, Thomas(2000), *La Revolución: Mexico's Great Revolution as Memory, Myth and History*,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urian, Edward(ed.)(1997), *Modernity and the Architecture of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amín, Héctor Aguilar and Lorenzo Meyer(1993), *In the Shadow of the Mexican Revolution: Contemporary Mexican History, 1910-1989*, Luis Alberto Fierro(tran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arranza, Luis E.(2010), *Architecture as Revolution: Episodes in the History of Moder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Creelman, James(2002), "President Díaz, Hero of the Americas," in Gilbert M. Joseph and Timothy J. Henderson(eds.), *The Mexico Reader: History, Culture, Polit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285-291.
- El MRM, a través del tiempo, Official Website for the Monument of the Mexican Revolution <http://www.mrm.mx>
- Excelsior*(1936), September 28, 1936.
- González, Michael J.(2007), "Imaging Mexico in 1910: Visions of the Patria in the Centennial Celebration in Mexico City,"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39, No. 3, pp. 495-533.
- Guillén, Mayro F.(2004), "Modernism Without Modernity: The Rise of Modernist Architecture in Mexico, Brazil, and Argentina, 1890-1940," *Latin American Research Review*, Vol. 39, No. 2, pp. 6-34.
- Guzmán, Martín Luis(1965), *The Eagle and the Serpent*, Harriet de Onís(trans.), Garden City: Doubleday.
- Joseph, Gibert M. and Jürgen Buchenau(2013), *Mexico's Once and Future Revolution: Social Upheaval and the Challenge of Rule sinc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Kim, Eun-Joong(1999), "José Vasconcelos: Munhwajeok Minjokjueuiwa Shinilryu(José Vasconcelos: Cultural Nationalism and New Humankind)," in Sung-Hyong Rhee(ed.), *Latin Americaeni Yeoksawa Sasang(History and Thoughts in Latin America)*, Seoul: Kachi Publishing Co., Ltd., pp. 220-242.
- Kirk, Betty(1942), *Covering the Mexican Front: The Battle of Europe Versus America*,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Krauze, Enrique(1997), *Mexico. Biography of Power: A History of Modern Mexico, 1810-1996*, Hank Heifetz(trans.),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Inc.
- LaRosa, Michael J.(ed.)(2005), *Atlas and Survey of Latin American History*, Armonk: M.E. Sharpe, Inc.
- Lomnitz, Claudio(2006), "Final Reflections: What Was Mexico's Cultural Revolution?," in Mary Kay Vaughan and Stephen E. Lewis(eds.), *The Eagle and the Virgin: Nation and Cultural Revolution in Mexico, 1920-1940*, Durham

-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335-349.
- New York Times*(1910), September 16, 1910.
- Nora, Pierre et al.(2010), *Realms of Memory: The Construction of the French Past*, In-Joong Kim et al.(trans.), Seoul: Nanam Publishing House.
- Noriega, Joaquín Cárdenas(1982), *José Vasconcelos, 1882-1982: Educator, Político y Profeta*, México, D.F.: Ediciones Océano.
- Obregón Santacilia, Carlos(1960), *El Monumento a la Revolución, Simbolismo e Historia*, México, D.F.: 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Departamento de Divulgación.
- Oles, James(2013), *Art and Architecture in Mexico*, London and New York: Thames & Hudson Ltd.
- Olsen, Patrice Elizabeth(2006), “Revolution in the City Streets: Changing Nomenclature, Changing Form, and the Revision of Public Memory,” in Vaughan, Mary Kay and Stephen E. Lewis(eds.), *The Eagle and the Virgin: Nation and Cultural Revolution in Mexico, 1920-1940*,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pp. 119-134.
- (2008), *Artifacts of Revolution: Architecture, Society, and Politics in Mexico City, 1920-1940*, Boulder and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 O’Malley, Ilene V.(1986), *The Myth of the Mexican Revolution: Hero Cult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xican State, 1920-1940*, New York: Greenwood Press.
- Paz, Octavio(1990), *The Labyrinth of Solitude*, Gwan-Soo Sohn(trans.), Seoul: Shinwonbook.
- Rhee, Sung-Hyong(2002), “Many Faces of Mexican Muralism: Murals of Rivera, Orozco and Siqueiros,” *Review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 11, No. 2, pp. 103-122.
- Tenorio Trillo, Mauricio(1996), “1910 Mexico City: Space and Nation in the City of the Centenario,”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Vol. 28, No. 1, pp. 75-104.
- Torres Parés, Javier, and Gloria Villegas Moreno(eds.)(2010), *Diccionario de la Revolución Mexicana*, México, D.F.: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 Website for Monuments in the World <http://www.war-memorial.net/Monumento-a-la-Revolución,-Mexico-City-1.91>

Article Received: 2016. 10. 15.

Revised: 2016. 11. 19.

Accepted: 2016. 11. 22.